

## 올 추석 코로나로 '후원의 손길' 급감

불우이웃- 복지시설 등 공공단체·회사·개인 등 발길 '뚝'

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경기가 하락세에 있던 작년에도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구청, 동사무소, 관변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관계자들이 정을 나누고자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후원금을 내거나 물품을 전달했다.

그러나 올 추석은 달라졌다. 관내 장애인 공동체 '브니엘의 집'(전화02-837-8513) 박상준 원장은 "하루 종일 후원의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며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회사나 가족단위, 개인들의 후원도 뚝 끊어졌다. 지난 해 같았으면 자원봉사자가 평균 20~30명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마저 발길이 끊어졌다"며 그늘진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한겨울의 얼음장' 같은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발걸음마저 거리를 뒀다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오류마을(전화 2612-6534) 관계자는 "택배마저 건물 밖에서 수령하는 분위기에 많은 봉사자가 찾



**전통시장은 인파 붐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수용품 할인행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제수용품 최대 20%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23일 오후 추석 성수품 구입차 남구로시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아오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명절의 분주함이 그림자도 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을 떠나서 불우한 이웃은 사정이 더 영하의 날씨다. 넉넉지 못한 사정에 추석이 다가오니 고척동의 오영자(65세)씨는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기다리는 것은 절망 뿐이다"이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해마다 추석 때가 되면 불우한 이웃을 찾는다는 김옥자(60세)씨는 "코로나로 경기가 바닥을 치는데다, 거리두기 때문에 후원물품을 전해주면서도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텔마을(2688-6109)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후원품은 고사하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관내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89개소(구립41개소, 사립 148개소)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성프란츠스코 장애인 복지관이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오류마을과 에텔마을이 있다. <김유권 기자>

## '구로사랑상품권' 35억 규모 추가 발행

지난 4월 50억, 7월 50억에 이어 3차로 발행  
할인율 7%·소득공제 30%...가맹점 7,990곳

구로구가 28일 '구로사랑상품권'을 35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 4월 50억원, 7월 50억원에 이은 3차 발행이다. 앞서 2차례 모두 상품권이 조기 완판됐다.

구로사랑상품권

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7,99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월 최대 70만원을 할인 구매할 수 있으며, 2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구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핀크, 페이코, 티머니페이, 광주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슬배생 등 14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할 수



구로구가 28일 '구로사랑상품권'을 35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지난 4월 50억원, 7월 50억원에 이은 3차 발행이다. 앞서 2차례 모두 상품권이 조기 완판됐다. (사진은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모습)

있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10월 14일까지 '부르심' 맛있는 소리, 평통 '떡깨비' 등 제로배달 유니온 앱을 통해 결제하면 10%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로배달이벤트 홈페이지(<http://www.zerodeliveryevent.co.kr/>) 참조.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집에 있어도 마음은 고향에"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구로오늘신문 임직원 일동

“난 권 잡 다  
들 불 SOS 센터 덕에  
밥 먹 고 외출도 한 다”

연제나!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하면!

**대상 :**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가구  
**내용 :** 긴급한 가사, 간병지원 및 일상도움(기관 연결)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02-860-2919

구 로 구



# 구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 2020년도 제3회 추경 106억원, 조례안 등 21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각 상임위원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일반 안전심사를 처리했으며,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호연)에서는 총 10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

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건이 원안가결 됐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다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



구로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회기를 마치면서 박동웅 의장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의

를 갖고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 “구민 삶의 질 향상” 구의원 조례 발의 ‘붐물’



왼쪽부터 조미향 의원, 노경숙 의원, 김영곤 의원, 김철수 의원, 이명숙 의원.

- 조미향 의원, 구로구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노경숙 의원, 구로구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 조례안
- 김영곤 의원,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한 조례안
- 김철수 의원, 구로 여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지원 조례안
- 이명숙 의원, 구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관한 조례안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의원들이 평소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마련에 집중한 결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가 붐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296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

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꿈의 오케스트라의 경비, 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안은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예산 지원 사업의 범위, 일반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김영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구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여성폭력방

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안전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명숙 의원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 식품 제공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지원, 위생교육 실시, 홍보 및 표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유권 기자>

## “추석 전후 선거 위법행위 특별 단속”

### 구로선관위, 유권자에 금품 제공 등 적발뺨 고발

구로구선관위(위원장 김용철)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른 각종 금지제한 행위 및 연말

기부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 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외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

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

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마음은 부모님께, 몸은 구로에... 올 추석엔 거리두기가 사랑입니다”

#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

코로나19로 고향 못가는 아쉬움,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추억 전해  
10월11일까지 구홈페이지서 공모...106편 선정 문화상품권 등 증정



구로구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성묘 가는 그 길은 황금들녘이  
있었습니다. 달빛 은빛 갈대밭이 출  
렁이는 그 때가 떠오릅니다. 코스  
모스가 하늘하늘 춤을 추는 그 길  
이 주마등처럼 아른거립니다. 가  
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  
던 그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  
님 어머니 올 추석은 죄송합니  
다.” (주민 A씨의 시)

“못 간다 생각하니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1년 내내 외로우셨을  
부모님, 명절에 더욱 외로우실 것  
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못  
된 코로나 안정되면 바로 찾아뵙  
겠습니다. 매일 매일 마음으로만  
하는 말, 부끄러워 입으로는 못했  
던 말, 글로 대신 전합니다. 아버  
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구청직원

B씨)  
“당당했던 올 아버지 어깨가 왜  
이리 작아보일까요. 살갑게 다가  
가지 못해 죄송해요. 아빠를 찾아  
뵙고 안아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구로구 직장  
인 C씨)

구로구의 손편지 쓰기 공모에  
응모한 참여자의 편지 내용 중 일  
부분이다.

구로구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  
는 상황 속에 맞이하는 추석을 앞  
두고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  
편지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로구는 “올해는 코로나19 지  
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  
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인사도 전하는 기회를 제  
공해 드리기 위해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랑의 손편  
지’ 공모도 진행한다. 공모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 부모님께 드  
리는 인사,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추억 등에 대한 내용을 손편지로  
작성해 구 홈페이지(www.guro.go.  
kr) 응모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 또는 구로  
구 소재 직장인은 한글 파일, 스  
캔 파일, 직접 들고 찍은 사진 등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6편의 우수 편지를 선정하고 내  
달 16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우  
수 편지는 구 소식지와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수 편지 16편을 포함해 총  
106편을 뽑아 응모자에게 문화상  
품권, 커피쿠폰 등을 증정할 계획  
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  
도 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손편지를 통해 아  
쉬운 마음을 달래고 사랑도 전하  
는 이번 캠페인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지역 현안 분석 ‘구정연구 보고서’ 발간

주민삶밀집 도시계획-재생, 지역경제, 복지-다문화 다뤄



구로구가 ‘구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

구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  
관된 지역 현안을  
분석해 각종 정책  
개발·도입에 활  
용하기 위해 구정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구정연구 보고서’는 도시  
계획, 도시재생, 지역경제, 복지·  
다문화 등 4개 분야로 제작됐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는 ‘구로 기  
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실태분석  
및 현황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구로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비교 분석 ▲운영방식  
실태 조사 및 현안 진단 ▲내실화  
를 위한 방향성 및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재생 분야는 ‘공동체에 기  
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자생적  
운영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쟁점 ▲구  
로구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다뤘다.

지역경제 분야는 ‘G밸리 도약

을 위한 스마트공장 수요현황 및  
도입효과 분석’을 연구과제로 ▲  
자치구별 제조업 특화 분석 및 4  
차산업혁명 관련 기업현황 ▲G밸  
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  
황과 효과 등을 분석했다.

복지·다문화 분야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 구  
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내외국인 아동청소년 방과후돌  
봄 만족도 및 상호인식 현황 ▲구  
로형 다문화 돌봄모델 개발을 위  
한 정책방향 제시 등을 조사했다.

구로구는 구청 각 부서와 구의  
회, 관내 유관기관, 서울시, 국립  
중앙도서관, 서울연구원 등에 구  
정연구 보고서를 배포했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  
지에도 게시했다. <채홍길 기자>

# ‘4차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

SW코딩·3D모델링 지도사 과정 무료로

구로구가 4차 산업 인재양성 프  
로그램을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도사 과정을 마련했  
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  
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지난 18  
일 밝혔다.

4차 산업 인재양성 지도사 과  
정 온라인 강의는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  
요일 총 15회 진행된다. 강의 이후  
에는 복습, 보충학습이 가능하도

록 VOD가 제공된다. 수강료는 무  
료다.

교육은 SW코딩지도사, 3D모델  
링지도사 2개 과정이 마련된다.

‘SW코딩지도사 과정’은 코딩  
핵심 프로그램인 ‘스크래치 실습’  
으로 이뤄진다. ‘3D모델링지도사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  
핵심 기술로 선정된 3D프린팅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실제 모델  
링 실습으로 구성된다.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구로평생  
학습관 홈페이지(http://edu.guro.  
go.kr/III)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과정별로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민수 기자>

#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구로구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  
선부담금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  
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  
자 부담제다. 매년 3월과 9월 2  
회에 걸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  
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다.(유료5·6 차량은 제외)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올해 1  
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이  
택스(etax.seoul.go.kr), 인터넷뱅킹,  
ARS(1599-3900),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유권 기자>

# 어르신 대상 ‘추석맞이 비대면 봉사활동’ 펼친다

관내 단체·기관과 협력 소외된 주민 챙겨  
말벗 봉사, 안부확인, 명절음식 제공 등  
홀몸어르신 130명에 ‘희망꾸러미’ 전달

구로구가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  
을 위한 봉사활동을 비대면 방식  
으로 펼치고 있다.

구로구는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  
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관내 기관, 단체 등과 힘을 모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  
난 23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 홀몸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말벗봉사를 실시한  
다. 각 동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들  
이 유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외  
로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  
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1,017명을 대상으로 명절 연휴 중  
1회 이상 안부도 확인한다.

홀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어르  
신들을 위해 명절 특식도 제공한  
다. 복지관, 어르신돌봄센터 등과  
함께 떡, 한과, 밀반찬 등을 마련  
해 관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1,200가구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  
달한다.

각 동별 봉사활동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가리봉

동을 시작으로 구로4동, 고척1  
동, 오류1동, 개봉3동, 개봉2동  
자원봉사협력단이 명절음식, 백  
미 등을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지원했다.

한편 구로구는 구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로구사회적기  
업·마을기업협의회와 협력해 홀  
몸 어르신 130명에게 ‘희망꾸러  
미’를 전달했다. ‘희망꾸러미’는  
김치, 쿠키세트, 마스크, 계란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8종으  
로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로 직접 만나긴 어렵지만, 마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한중다문화깔끔이·구로글로벌위원회·한중다문화경로당 '합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무궁화-국화 단지'로 탈바꿈

구로구 남구로시장 입구에 꽃내음이 가득해졌다.

구로4동에 설치됐던 조화 화단이 무궁화 나무와 가을 국화로 가득한 생화 화단으로 변신했다.

2018년 8월 한중 다문화봉사단에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조화 화단을 조성하면서 쓰레기가 사라지고 주변이 쾌적하게 변신했으나 조화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이번에 나라꽃인 무궁화 나무와 국화꽃으로 새로 생화 화단을 조성했다.

이번 생화 화단은 한중다문화깔끔이총연합회(회장 김영희) 구로글로벌위원회(회장 김경진) 한중다문화경로당(회장 현효석) 등 한중다문화단체 회원들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능기부로 직접 화단을 만들었다.

새롭게 단장된 화단은 남구로시장 입구에 위치해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구로4동에 설치됐던 조화 화단이 무궁화 나무와 가을 국화로 가득한 생화 화단으로 변신했다. <참석 인사들이 화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 있는 잠시 '쉼'의 장소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화단 조성 완료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별도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테이프 커팅, 표지석 제막식 등의 기념 사진 촬영으로 그 동안의 노고를 자축했다.

이 자리에는 박동웅 구로구의회의장, 박철성 전 구로구의회의장,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노경숙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장,

유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보상 청소행정과장, 민숙경 구로4동장 등이 조성된 화단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희 한중다문화깔끔이총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주변 청소, 물주기, 꽃 가꾸기 등 직접 화단을 관리하고, 내년 봄에는 화사한 봄꽃으로 단장하여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사랑의 추석선물 500꾸러미' 기부 이성 구청장, 김한기 사회복지협의회장에 감사장



사진 왼쪽부터 오승주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성 구청장, 김한기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성 구청장이 지난 21일 사랑의 추석선물 전달식에 참석해 2019년 이웃돕기 우수기부자인 사회복지협의회 김한기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구로구나눔 네트워크가 구민들이 기부한 성금

으로 마련한 추석선물꾸러미 500개를 구청에 전했다. 추석선물꾸러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된다.

이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로운 명절을 보낼 이웃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여성보호시설에 여성케어박스 50개 전달



시설관리공단 명든 마음에 치유의 손을 내밀다 '여성케어박스' 전달식 2020. 9. 21.(월) 장소: 유프라시아의 집

유영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청소년보호시설 유프라시아의 집에 여성케어박스 50개를 전달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1일 청소년보호시설(유프라시아의 집)에 여성케어박스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여성에게 필요한 패키지 물품을 하나의 박스로 구성함으로써 여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여성케어박스는 해당 시설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혜자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했다. 재사

용이 가능한 면 생리대, 위생속옷, 일회용 찜질팩 등 세트로 구성됐으며, 한방 찜질팩도 함께 전달했다.

유영환 이사장은 "여성에게 따뜻한 치유의 마음을 상징화한 박스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약자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원방안을 구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언택트 힐링 프로그램]

혹시나도 코로나 블루(blue)?  
 코로나 19 이후, 사회활동 제약, 격리에서 오는 우울감.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 정신튼튼! 마음튼튼!

## 슬기로운 마음방역 챌린지

모든 교육은 ZOOM, BAND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020.08. ~ 2020.12.(5개월)]

1. 꽃으로 말하게 (원예치료)
2. 슬기로운 공예생활 (DIY)
3. 예쁜정원 가드닝
4. 랜선쿠킹 클래스
5. 코로나NO-건강에브리데이

G밸리보건지소 : 02-860-8172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육민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 긴급한 가사·간병부터 일상적인 ‘돌봄’ 까지... “구로구 ‘돌봄 SOS센터 서비스’ 이용하세요”

## 최근 50여일간 ‘일시재가’ 등 400여건 제공



구로구가 지난 8월3일부터 관내 16개 전 동에서 돌봄SOS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일시재가 등 400여건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코로나19 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5개 구에서 시범운영하던 돌봄SOS센터를 25개 서울시 자치구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도 돌봄SOS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구로구는 2021년 7월까지 선행사업 기간임에도 본사업과 동일하게 관내 16개 전동에서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다. 누군가 잠깐만 돌봐 주었으면, 주변에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없을 때 등 그 고민은 돌봄SOS에 문을 두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

구로구는 두 달여 동안 돌봄SOS센터를 운영한 결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일시재가 42건, 식사지원 158건, 정보지원

21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는 어떠한 복지행정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각종 돌봄매니저는 전하고 있다.

다만, 구로구의 돌봄 서비스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는 8대 서비스 중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제공의 4대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은 50세 이상 모든 시민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85%(코로나 기간 중 중위소득 100% 미만) 이하는 이용료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는 자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범석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은 “이번 돌봄SOS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계절 감각을 잃어 버렸다.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고, 벌써 추석이 눈 앞에 다가왔다. 작년만 해도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마스크에서 추석 프로를 연신 내보냈었다. 올해는 오히려 추석에도 가급적이면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라는 방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기둥이나 대분 위에 걸어도 했다. 이것을 을게심나라고 한다. 풍년에 감사하고, 내년도에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기원 행위다. 그래서 추석에는 풍작의 기쁨을 누르며 여러 놀이를 즐

### 한가위만 같아라 ㉔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명절이었다. 추석(秋夕)을 또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은 매우 크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한 없이 많다, 한량없다. 리는 말을 사용할 때와 같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이다. 그러니까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다.

예전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의 이삭을 한줌씩 묶어서 집

졌다. 경향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혈연들이 모여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예를 올리고 했다.

한가위는 이처럼 농정사회에서 일년의 농사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고, 무탈하게 농사를 짓게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조상한테 예를 올리는 의미도 있다. 지금은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본지 회장〉

### 고대구로병원 ‘외상후 사지 골수염 재건팀’ 우수 구연 학술상 수상

고대구로병원은 최근 외상 후 사지 골수염 재건팀(정형외과 오종건·조재우, 성형외과 정성호 교수팀)이 ‘2020년 대한골절학회 46차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건팀은 ‘하지에 발생한 외상 후 골감염의 치료에 있어 다단계 유도막골재건술 치료 후 성공결과와 감염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

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구연 학술상을 받았다.

자료 분석 및 발표를 담당하고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조재우 교수는 “만성 골감염은 광범위한 골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을 동반하고 치후 재발이 많아 치료가 매우 힘든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골수염 재건팀의 하지 재건프로토콜의 감염재발 억제 우수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



왼쪽부터 정성호·조재우·오종건 교수 〈김유권 기자〉

### 서울남부보훈지청, 추석 맞아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품 전달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추석을 맞아 (주)효성 및 (주)조아교역 후원으로 지난 18일부터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 20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사진〉

(주)효성은 2016년부터 매년 3회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에 이어 참치·햄세트 200개를 후원했고, (주)조아교역 역시 올해 설 명절에 이어 한우살림탕 파우치 200개를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후원했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 사회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

Table with columns: 구분, 명칭, 전화번호, 주소, 09월 30일, 10월 01일, 10월 02일, 10월 03일, 10월 04일. Lists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pharmacies during the Chuseok holidays.

추석 연휴 1일~4일 쓰레기 배출 금지

구로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청소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청소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공무원, 직영 청소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 근무자 등 모두 550여명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민원사항 신고시 신속 처리,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연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휴무에 따라 지정된 날에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월·수·금 배출 지역은 30일(수)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와 10월5일(월) 오후 8시 이후에 가능하고, 일·화·목 배출 지역은 29일(화) 오후 8시 이후와 10월4일(일) 오후 8시 이후에 배출이 가능하다. 10월 1일(목)부터 4일(일) 오후 8시 이전엔 배출이 금지된다. <채홍길 기자>

티뷰크사회복지재단, 김치 2400박스 구로구에 기탁

글로벌금융판매 백미 500포, 계란자조금관리위 계란 1,000판 기부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후원하고, (사)따뜻한마음이 후원 연계한 에그투게더 계란전달식. 사진 왼쪽부터 계란자조위 김양길 위원장, 이성 구청장, 따뜻한마음 김동욱 이사장.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1일 구로구에 '사랑의 김치' 2,400박스를 기탁했다.(사진 왼쪽이 황성식 재단이사, 오른쪽이 구로구청 이동섭 복지정책과장)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이선욱)이 지난 21일 '사랑의 김치' 2,400박스를 구로구에 기탁했다. 이번 '사랑의 김치'는 추석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치는 구청과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755가구와 장애인·여성·어르신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보훈단체 등에 전달됐다. 한편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은 매년 구로구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김치, 말반찬, 쌀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구로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주)글로벌금융판매(대표이사 김민규·김종선·이건)가 지난 22일 백미 10kg 500포를 구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가정에 후원했다. 앞서 17일에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가 후원하고, (사)따뜻한마음(이사장 김동욱)이 후원 연계한 에그투게더 계란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기부 받은 계란(30구) 1,000판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배부됐다. <김지현 개봉1동 시민기자>



# 400회 헌혈 신용역씨 '생명 나눔 실천' 앞장

## 두 아들도 헌혈 유공 금장-은장 받아 '헌혈 가족'

중앙혈액원 김동석 원장, 신씨에 감사패 전달

지난 9월 19일 오후 4시경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동석) 관할 '헌혈 의집 구로디지털단지지역센터(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 6번 출구)'에서 신용역씨가 특별한 횃수의 헌혈을 했다. 이번은 신용역씨가 400회째 헌혈하는 날이었다. 신씨는 바쁜 와중에도 400회째 꾸준한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오후 4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관할 '헌혈의집 구로디지털단지지역센터'에서 신용역씨가 400회 헌혈을 했다. 신씨는 바쁜 와중에도 꾸준한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헌혈자이자 헌혈 봉사회원이기도한 신용역씨는 생명 나눔과 기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신념이 있어 왔다. 신용역씨는 "40여년 전인 지난 1978년도 고3때 적십자병원으로 처음 헌혈을 하러 갔었던 게 시작이었다. 그때만 해도 자발적 생명 나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하던 시절이라 헌혈하러 왔다가 병원 경비아저씨가 오히려 말리는 황당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렇게 1년에 2번씩, 3~4번씩 점점 늘려하다가 성분헌혈이 실시되면서 혈장 및 혈소

판 성분헌혈 등으로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하게 됐다"고 한다. 신용역씨는 "헌혈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다만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뭐든 실천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장기기증, 매월 정기적인 기부, 헌혈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실 내가 선행을 실천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는데, 2명 모두 나와 같은 정기적인 다회 헌혈자이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 헌혈 유공장 은장, 금장을 받았으며, 큰 아들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 헌혈의집에 방문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헌혈이라는 좋은 일은 그만큼 함께 나누고 널리 확산되면 더 기쁜 것 같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 말로 백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식이 비뚤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헌혈 하는 게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무탈하게 또 2주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수수료라고 생각한다. 좋은 생각,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미있는 비유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구로디지털단지지역센터 김연량 센터장은 이날 신용역씨의 400회 헌혈을 기념하여 함께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헌혈자가 줄고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려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특히 절실한 현 시점에서 신용역씨의 이러한 꾸준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서울중앙혈액원 김동석 원장은 혈액원 소속의 헌혈 봉사회원으로 서도 열심히 수고해준 봉사자와 나눔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감사패도 함께 전달했다. <채홍길 기자>

# 관내 확진자 1주일새 11명 추가... 모두 176명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 24일 하루에만 3명이 추가로 발생, 일주일 사이 11명 등 모두 176명이 됐다.

9월24일 현재 확진자는 176명으로 151명이 완치 퇴원하고 25명이 치료중이다.

구로구 173번 확진자는 오류2동 거주 61세 남성으로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22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 172번 확진자는 구로5동 거주 76세 여성으로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입원환자로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1번 확진자는 개봉2동에 사는 25세 남성으로 발열 증상으로 21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 170번 확진자는 구로4동 거주 32세 남성으로 구로구 168번(남 55세) 169번(여 54세) 확진자의 가족으로 20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7번 확진자는 신도림동에 사는 51세 여성으로 18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6번 확진자는 고척1동 거주 68세 여성으로 양천구 확진자 접촉자로 18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당일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76명으로 치료중 25명, 완치

자 151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 접촉자 92명, 해외입국자 348명 등 모두 441명, 능동감시대상자 1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해외 입국 3명, 타시군구 접촉자 32명, 기타 57명으로 집계 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24일 현재 모두 5,095명으로 5,000명을 넘었고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362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331명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323명으로 3개구가 300명을 넘어섰고 ▲노원구 299명 ▲강서구 278명 ▲강남구 261명 ▲은평구 244명 ▲동작구 223명으로 8개구가 200명을 넘어섰다. 또 ▲서초구 187명 ▲중랑구 184명 ▲영등포구 183명 ▲양천구 180명 ▲강동구 180명 ▲도봉구 176명 ▲구로구 176명 ▲마포구 160명 ▲강북구 144명 ▲동대문구 143명 ▲광진구 126명 ▲서대문구 125 ▲성동구 117명 ▲용산구 115명으로 모두 22개구가 100명이 넘었다. 이어 ▲금천구 90명 ▲종로구 86명 ▲중구 5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중단... "일정 차질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독감 무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독감 무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접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독감백신 오염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10월까지 예정된 연령대별 무료 접종 개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개연성이 커진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백신 폐기 물량 급증으로 무료 접종 자체가 어려워지고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는 이날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하던 무료 독감백신 500만도즈(1도

즈·1회 접종량) 중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료 독감접종 전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은 업체(신성약품)가 독감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을 냉장

상태가 아닌 상온에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돼 향후 2주간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며 "제품 제조상 문제는 아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22일부터 예정된 독감 무료 접종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대상자 가운데 생애 첫 접종자나 접종 이력을 몰라 총 2회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에게 무료 독감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접종을 마친 백신은 각 의료기관이 별도 도매상을 통해 구입·접종한 뒤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기접종자 11만8000여 명 중 이상 반응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 독감백신은 올해 1900만명분으로 책정됐다. 예년에 비해 만 13~18세와 62~64세가 무료 접종 대상군으로 추가됐다. <김유권 기자>

# 구청 직원 청렴·인권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23, 24일 각자 사무실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통해 참여

구로구가 23, 24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깨끗하고 인권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은 청렴, 둘째 날은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했다.

이근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청렴인문학, 적극행정,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구로구가 23, 24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다양한 사례를 들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꾸준한 청렴·인권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 이영식 시인 시집 '꽃, 응가' 출간

이영식 시인이 시집 '꽃, 응가'를 출간했다.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상상은 이지(理智)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지만 공상은 사고(思考)를 형성한다든가 창조하는 힘이 없는 열등한 기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상은 이성(理性)을 감각적인 심상(心象)과 합체한다는 뜻일 게다.

다시 말해 시(詩)는 사물에 생명력을 넣어주거나 마음에서 인지하고 있는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를 쓴다면서 헛된 공상만 가득 펼쳐놓고 형상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시는 독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시는 관념적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지만 시에는 분명 품격이나 품질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인 시가 작품성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사고(思考)다.

서두가 길었다. 시와 시인이 같을 수 있을까. 시인의 글처럼 그 사람이 휴머니즘(humanism)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시는 좋는데 상품의 질이 나쁜 사람도 많은 세상이다.

작가의 글과 삶이 다른 사람들



그 러 나 명 예 를 거 머 쥌 사람들을 우 리 는 주변에서 흔히 만 난다. 하 지 만 이 영식시인

은 상품과 시가 같다. 따뜻한 시를 쓰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가령 페이스 북 친구의 소식을 듣고 전시회나 개업식에 참여해 축하를 해주는 일, 부산에서 양평까지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는 일 등등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가 보자. [덕포 희망은행 건너 버스정류장 앞에서/ 할머니가 살찐 붕어를 키운다// 잣 돌 지난 아기처럼 풀망팔망 눈 뜬 붕어들/ 밭그름 익은 입술 방긱거리다/ 할머니 연신 붕어를 살려내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손님이 없다// 오늘은 붕어들이 할머니보다/ 근심이 더 깊은 날이다/ 붕어의 입술들이 시퍼레진다]

할머니와 붕어빵 전문

붕어빵을 굽는 할머니의 근심은 장사가 안 되는 것, 이 근심을 오롯이 붕어빵이 받아들고 입술이 파래진다. 가볍게 읽어도 마음이 따듯해진다. 어렵게 숙제하듯 읽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결이 고운 서정을 그대로 들어낸다. 이영식 시인의 말처럼 '자아의 서사화'다.

소박하지만 읽을수록 맛있는 시다. 사물과의 조우, 그가 응시하는 세상이 맑다. 낭만적이거나 서정의 복잡한 깊이가 광기를 넘나들며 독자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옛날 어머니들이 애지중지 아끼던 장독대 뒤란 같다. 어머니들은 그곳에 장만 보관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고 음식 맛은 장맛이 좌우한다는 기본을 잊지 않았다. 그만큼 장독대 너머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세상을 생각했다.

이영식 시인은 남성이면서도 어머니의 품속을 닮았다. 아마도 그가 오래도록 가슴으로 품었던 어머니에 대한 향기가 오롯이 그의 가슴에 전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부산출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졸업, 새부산시인협회 회원, 한국문예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꽃, 응가'는 시산책사에서 출간했다. <조운주(시인) 객원 기자>

## 초대시

### 빗줄기는 몇 볼트일까

시인 이도훈



내다 버린 멀티탭 구멍 속으로 빗줄기들이 꽃한다.

불화를 버린 모습으로 묵묵하다.

그렇다면 빗줄기는 몇 볼트일까. 물고기를 부르르 떨게 하던 물속의 전류를 본 적이 있는가. 봄비 오고 꽃들의 스위치를 올리던 전류들을 본 적이 있는가. 뭉쳐서 휘어지던 줄기 떨어진 빗줄기 전선이 다시 넝쿨을 타고 오르던 여름, 빗줄기가 끌어올린 전류는 벽락이 되거나 지렁이로 만들거나 웅덩이가 된다.

감전의 한때가 철썩거리는데  
불꽃 없는 멀티탭 속에 미지근한 미열,  
비가 그치면 재채기를 할 것 같은  
간지러움

전선의 끝, 코드는 자꾸 나팔꽃 속으로 꽃히려 하고  
있고 올라리를 넘어선 줄기를 타고 5축 전구를 기웃거리고  
커피잔을 데우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음악을 천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불어오는 바람과 빗줄기는  
몇 볼트일까.

찌릿한 광선 한 줄기  
웅쳐진 멀티탭 전선 속을 달린다.

(시집: 맑은 날을 매다 중에서)

- 월간 시와 표현 신인상 수상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지원금 수혜
- 도서출판 도훈 대표

## '밖으로 나온 미술관' 구로G페스티벌 야외 전시회 마련

오류역문화공원, 신도림역 디큐브광장... 온라인 감상도 가능

구로구가 구로G페스티벌의 기획 행사로 야외 전시회를 마련해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

오류역문화공원에서는 '밖으로 나온 미술관! 견생조각전'이 열린

다. 크라운 해태가 후원한다. '보면(見) 생명(生)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은 '견생 조각전'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고근호 작가) 동화(김경일 작가) Station(전



신덕 작가) 벤치카(백종인 작가) CYMATICS(백진현 작가) 이카루

스의 꿈(설총식 작가) Dreams Gathered(신한철 작가) 등 전문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신도림역 디큐브광장에서는 역사만화가 오연 작가의 '이스트 아시아 판타지전'이 펼쳐진다.<사진> 이스트 아시아 판타지, 서유기, 삼국지(공명), 그림 속에 있는 집

등 아시아 관련 일러스트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 고대사를 전통적인 수묵채색 기법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현장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구로G페스티벌2020')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피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